

# GIST, 호남권 창업생태계 거점 '지스트 홀딩스' 가동

- 'GIST 비전 2053'에 따라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 목표
- 기술사업화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수익창출-재투자 선순환 모델 구축 기대



▲ 17일(수) GIST 산학협력연구관에서 '지스트기술지주(주)(GIST Holdings)' 개소식을 열고, 축하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전상훈 감사부장, 김희삼 기획처장, 이광희 연구부총장, 김민곤 지스트기술지주(주) 대표이사, 임기철 GIST 총장, 나기수 산학발전위원장, 전일승 (주)라피네제이 대표이사, 김종민 (주)조인트리 부사장, (주)코리아모빌리티 박정석 대표이사, 김재관 GIST 대외협력처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7일(수) 산학협력연구관에서 지주사인 '지스트 기술지주 주식회사(GIST Holdings, 대표이사 김민곤/ 화학과 교수)' 개소식을 열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및 혁신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취임 이후 '실사구시형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원내 우수한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의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지스트기술지주 주식회사'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기철 GIST 총장과 처장단, 김민곤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나기수 산학발전위원장 및 호남지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이 진행됐다.



▲ 17일(수) GIST 산학협력연구관에서 '지스트기술지주(주)(GIST Holdings)' 현판식을 하고 있다.  
현판 기준 (우) 임기철 총장, (좌) 김민곤 대표이사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스트기술지주 주식회사'는 **2030년 50개 출자회사 설립 및 총 매출 2,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출자회사 설립지원 ▲제품개발, 상용화, 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투자자와의 전략제휴를 통한 대형 기획창업 추진 ▲투자펀드 결성 및 운영을 통한 투자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지스트기술지주(주) 설립은 지난해 우리 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GIST 비전 2053'의 성과확산 핵심 목표인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순환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유망기업과 함께 혁신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민곤 지스트기술지주(주) 대표이사는 "GIST는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확산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스트기술지주(주)의 설립을 계기로 한층 더 체계화된 기술사업화와 창업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과 GIST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